

주식전략

주식전략 담당 이상연

lee.sang-yeon@shinyoung.com

10 월, 반등의 길목

분석의 기본가정

- VKOSPI 하락 전환과 증시 과열 해소와 같은 외국인 매수확대의 여건은 이미 조성
- 9월~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증시 반등 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9월 KOSPI를 지탱한 것은 기타법인이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8조원, 13.1조원을 순매도한 가운데 기관이 흡수한 금액은 4.4조원에 그쳤다. 나머지 공백을 메운 것은 기타법인의 21.5조원 순매수였다. 다만 매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는 한도가 있다.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외국인·기관·개인 가운데 이를 이어받을 매수 주체가 필요하다. 이 중 투자자의 관심이 높고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큰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점검해봤다.

눈에 띄는 특징은 외국인의 매수가 일부 거래일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난 21개월간 순매수를 기록한 182일의 순매수액은 총 127.1조원이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일이 25.8%, 상위 20일이 40.9%를 차지했다. 순매수일의 약 11%에 전체 순매수액의 40% 이상이 몰린 셈이다. 외국인 수급을 이해하려면 큰 매수가 나타나는 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보다 무엇이 이들의 집중 매수를 이끌었는지 살펴봤다.

과거 대량 매수 사례에서 주목한 조건은 세 가지다. 1) VKOSPI가 고점을 지나 하락하고, 2) 단기 과열이 진정되며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물이 출회되고, 3) 기존 기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뉴스가 등장하는 것이다. 결국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보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개인의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매수 근거가 더해졌을 때 두드러졌다. 현재는 앞의 두 변화가 관찰된다. VKOSPI는 7월 고점 89.3에서 43.6으로 내려왔고, 개인은 9월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매수를 자극할 재료이며 관련 이벤트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몰려 있다.

미중 정상회담(9/24), 마이크론 FY26 4분기 실적(9/30),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10월 초)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미중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이나 AI·회토류 관련 원론적 합의 정도를 예상한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성장 전망이 시장 눈높이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메모리 가격(P) 상승뿐 아니라 출하량(Q) 확대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다. 가격과 함께 실제 수요와 출하도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이익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실적 기대가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미·이란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아야 한다. 전쟁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유가와 금리 불안이 실적 기대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월 초까지는 반등을 시도할 구간으로 본다. 반대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고 실적 전망도 개선되는데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금리 불안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수 상승폭 제한이 불가피하다.

9월 외국인 -12.8조
개인 -13.1조
기타법인 +2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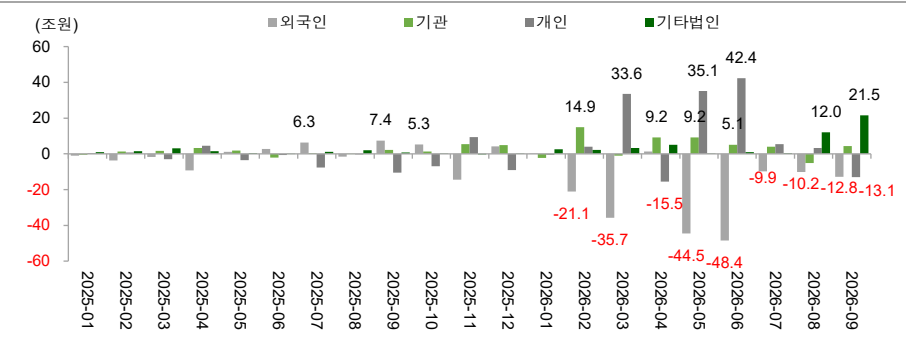
7월까지 일평균 0.07조
8월 이후 0.99조
14배 급증

9월 KOSPI 수급: 외국인·개인의 동반 매도를 기타법인 21.5조가 흡수

9월 KOSPI는 +1.1%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에도 지수가 버틴 배경에는 기타법인이 있었다. 외국인이 12.8조원, 개인이 13.1조원을 순매도해 매도 물량이 25.9조원에 달했으나 기관 순매수는 4.4조원에 그쳤다. 차이를 메운 것은 기타법인의 21.5조원이다. 이는 9월 14영업일 기준 일평균 1.54조원으로, 같은 기간 외국인 일평균 순매도(-0.92조원)의 1.7배다. 특히 8월을 기점으로 기타법인의 누적 순매수 기울기가 급격히 가팔라졌다.

기타법인의 매수 규모가 달라진 시점은 8월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일평균 순매수는 0.07조원이었으나, 8월 이후에는 0.99조원으로 약 14배 늘었다. 올해 누적 순매수 48.1조원 가운데 약 70%인 33.5조원이 8~9월에 집중됐다. 7월 KOSPI가 22.2% 급락한 직후부터 매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 부담을 덜어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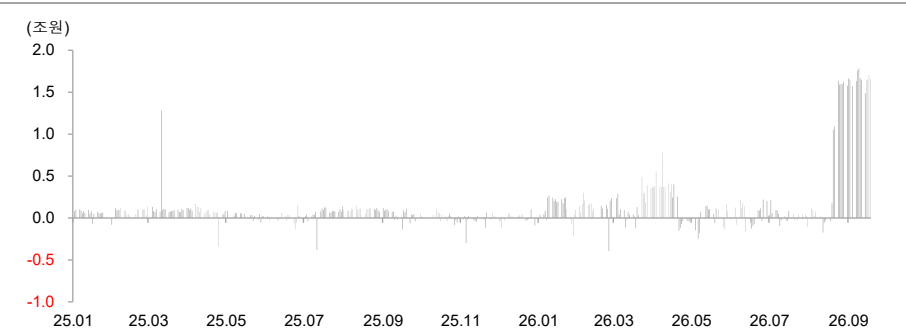
도표 1. KOSPI 투자주체별 월별 순매수 추이(2025.01~2026.09)



주) 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기타법인 KOSPI 일별 순매수 추이(2025.01~2026.09)



주) 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2026년 월별 투자주체별 순매수와 KOSPI 수익률

월	KOSPI	수익률(%)	외국인	기관	개인	기타법인
1월	5,224	24.0	0.1	-2.3	-0.4	2.5
2월	6,244	19.5	-21.1	14.9	4.0	2.2
3월	5,052	-19.1	-35.7	-1.1	33.6	3.2
4월	6,599	30.6	1.2	9.2	-15.5	5.1
5월	8,476	28.4	-44.5	9.2	35.1	0.2
6월	8,476	0.0	-48.4	5.1	42.4	0.9
7월	6,595	-22.2	-9.9	4.0	5.4	0.5
8월	6,820	3.4	-10.2	-5.1	3.2	12.0
9월	6,894	1.1	-12.8	4.4	-13.1	21.5

주) 2026.09.18 기준, 초록색 음영은 해당월 최다 순매수 주체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자사주 매입은
기간이 정해진 수요

기관은 상승일에,
개인은 급락일에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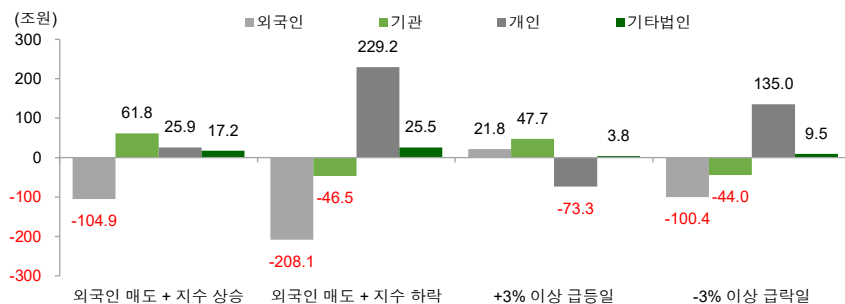
자사주 매입 종료 이후를 대비한 수급 점검

최근 기타법인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은 계획된 물량을 채우면 종료되는 만큼, 지금의 매수 규모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법인의 9월 일평균 순매수 1.54조원을 20영업일로 환산하면 약 31조원에 달한다. 전액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지수를 받친 매수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올해 기관의 월평균 순매수액이 4.3조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관만으로 이를 대체하기는 부담스럽다. 이에 시장의 관심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종료 이후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기관과 개인도 각기 다른 시기에 지수를 지탱해왔다. 2025년 첫 거래일부터 2026년 9월 18일까지 외국인이 순매도했는데도 KOSPI가 오른 날은 106거래일이었다. 이 기간 기관은 61.8조원을 순매수했다. KOSPI가 3% 이상 급등한 34거래일에도 기관은 47.7조원을 사들였다. 반대로 3% 이상 급락한 38거래일에는 개인이 135조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상승일에 매수세를 보였고, 개인은 급락일에 쏟아진 매물을 받아냈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만을 지수 상승의 조건으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매수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개인은 5~6월 99조원을 순매수한 뒤 9월에는 13.1조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기관은 8월 5.1조원 순매도에서 9월 4.4조원 순매수로 돌아섰으나, 기타법인의 매수를 이어받기에는 규모가 작다. 두 주체의 매수 여력이 소진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투자 주체의 매수 확대나 기존 매도세의 진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표 4. 국면별 투자주체 순매수



주)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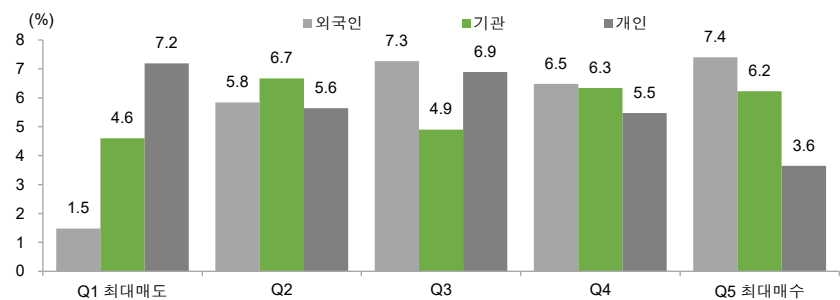
외국인이 크게 샀던 날,
이후 성과도 양호

그렇다면 외국인 수급에서는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을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의 관심도 높은 만큼, 매수 강도와 이후 지수 성과의 관계를 살펴봤다. 투자주체별 일별 순매수 금액을 작은 순서대로 정렬해 거래일 수가 같도록 다섯 구간(5분위)으로 나눴다. 1분위는 순매도가 가장 큰 구간, 5분위는 순매수가 가장 큰 구간이다. 이어 각 거래일로부터 20영업일 뒤의 KOSPI 수익률을 계산하고, 분위별 평균을 비교했다.

외국인은 최대 순매도 구간인 1분위의 이후 평균 수익률이 1.5%였고, 최대 순매수 구간인 5분위에서는 7.4%로 높아졌다. 두 구간의 차이는 5.9%p다. 중간 구간에서 수익률이 순서대로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매도가 가장 강했던 때보다 매수가 가장 강했던 때 이후 지수 성과가 뚜렷하게 좋았다. 개인은 반대로 최대 순매도 구간의 이후 수익률이 7.2%, 최대 순매수 구간은 3.6%였다. 기관은 분위별 수익률이 4.6~6.7%로, 순매수 강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외국인의 매수가 이후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석 기간에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와 양호한 이후 성과가 함께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액이 일부 거래일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매수를 이끌었던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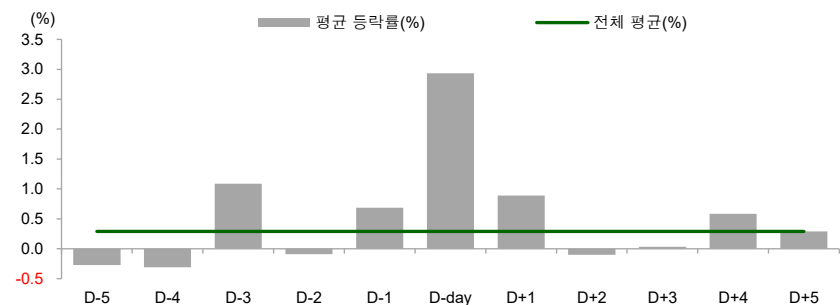
도표 5. 주체별 순매수 5분위별 향후 20영업일 KOSPI 수익률



주)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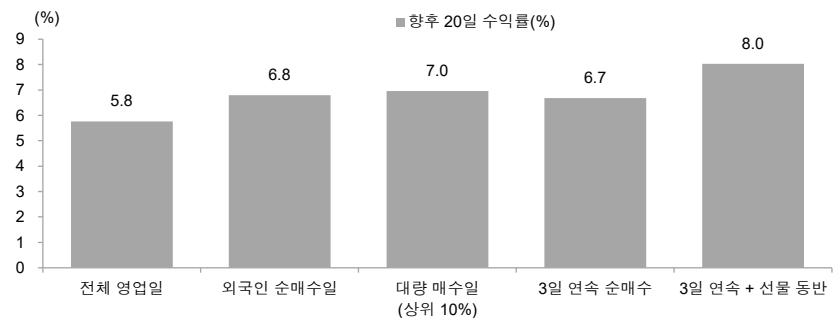
도표 6. 외국인 대량 매수일 전후 KOSPI 평균 등락률



주) 대량 매수일 = 분석 기간 전체 영업일(418 일) 중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42 거래일)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외국인 매수 신호별 향후 20영업일 KOSPI 수익률



주) 2025.01.02~2026.09.1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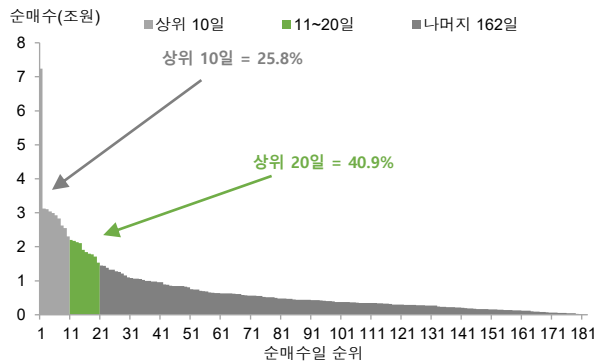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매수금액의 40.9%가
상위 20일에 집중

외국인은 언제 KOSPI를 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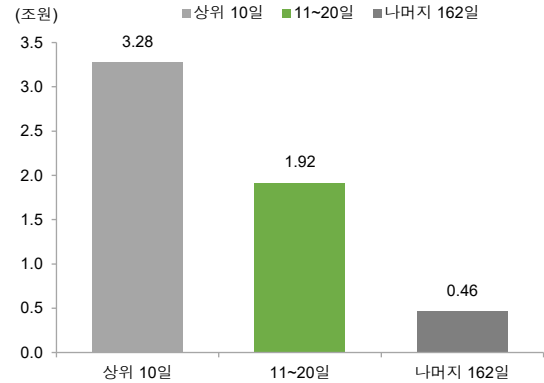
외국인의 매수는 일부 거래일에 집중됐다. 순매수를 기록한 182일의 순매수액 합계 127.1조원 가운데 상위 10일이 25.8%, 상위 20일이 40.9%를 차지했다. 순매수일의 약 11%에 전체 순매수액의 40% 이상이 몰린 셈이다. 따라서 외국인 수급을 이해하려면 매수의 지속성분 아니라, 한 번에 큰 규모로 들어오는 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량 매수가 나타났던 날의 공통점을 살펴봤다.

도표 8. 외국인 순매수일 집중도



주)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외국인 순매수액 구간별 1일 평균 순매수액



주)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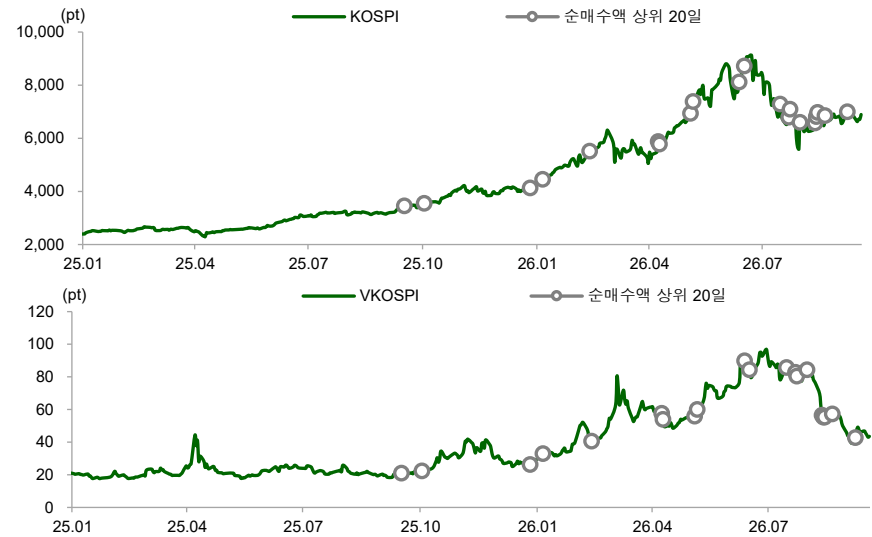
- ① VKOSPI 하락 전환
- ② 개인 매수세 약화 및 매물 출회
- ③ 컨센서스 밖 재료

외국인의 대량 매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변동성이 진정 되는 시기에 매수가 나타났다. 외국인 순매수일의 평균 VKOSPI는 34.0으로 순매도일의 44.1보다 약 10pt 낮았고, 순매수일에는 VKOSPI가 평균 0.28pt 하락했다. 대량 매수 도 VKOSPI가 고점을 지나 내려오는 구간에 집중됐다. 순매수 상위 10일의 KOSPI 평균 수익률은 전일 +0.69%, 당일 +2.93%, 다음 날 +0.89%였다.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 매수하기보다, 반등이 시작된 뒤 매수를 늘리는 모습에 가까웠다.

둘째, 단기 과열이 진정되며 개인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매물이 출회되는 시기였다. 상승 기대를 바탕으로 매수하던 개인이 주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보유 물량을 줄이고, 이를 외국인이 받아내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7.24조원을 순매수한 7월 31일 전후 이틀간 개인은 8.5조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의 매도 확대가 외국인에는 대규모로 물량을 확보할 기회가 된 셈이다.

셋째, 시장의 기대를 바꾸는 재료가 있었다. 빅테크 실적 호조에 따른 AI 투자 지속성 확인, 중동 휴전 기대, 오픈AI 신규 모델 공개와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 기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재료는 이익 성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거나 불확실성을 완화하면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설 근거를 제공했다. 결국 외국인의 대량 매수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보다, 변동성이 진정되고 개인의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새로운 매수 근거가 더해졌을 때 두드러졌다.

도표 10. 외국인 순매수액 상위 20일 및 KOSPI, VKOSPI 비교



주)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2025.01.01~현재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일과 주요 이벤트

일자	KOSPI	등락률(%)	외국인 순매수(조원)	VKOSPI	주요 내용
26.07.31	6,595	17.9	+7.24	84.4	빅테크 실적호조에 따른 AI 투자 지속 확인
25.10.02	3,549	2.7	+3.13	22.3	샘 울트먼 방한 및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삼성전자 및 SK 하이닉스 대형주 상승에 따른 강세장 지속
26.05.06	7,385	6.5	+3.11	60.1	4 월 및 5 월 1~10 일 반도체 수출 호조 확인에 반도체 호황 장기화 기대 확대
26.08.14	6,978	2.4	+3.04	55.3	7 월 급락 이후 반도체 대형주 중심의 반등 지속
26.02.12	5,522	3.1	+3.00	40.5	워시 연준 의장 지명 쇼크 이후 반등 및 WGBI 지급 편입 기대
26.05.04	6,937	5.1	+2.93	55.9	AI 랠리 지속 및 젠슨 황 방한 기대 유입
26.08.12	6,579	3.7	+2.84	56.5	삼성전자·SK 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 발표 기대에 따른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
26.07.22	6,798	0.7	+2.62	82.8	TSMC 2027 년 10% 가격 인상에 따른 반도체 투자 심리 회복
26.09.07	6,995	4.6	+2.55	42.7	오픈 AI 신규 모델 공개와 엔비디아 생태계 확장 기대
26.07.15	7,284	6.2	+2.30	85.8	6 월 미국 CPI 예상치 하회로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주) 일간 외국인 순매수액 내림차순, 2025.01.02~2026.09.18 기준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외국인 순매수 조건

조건	기준	현재상태	판정
① 변동성 고점 통과	VKOSPI 하락 전환	89.3(7월) → 43.6	충족
② 개인 매매로 물량 발생	개인 순매도 전환	9월 -13.1조	충족
③ 컨센서스 밖 섹터 재료	예고 없던 뉴스	9/24~10월 초 이벤트 대기	판정 대기
복귀 확인 신호	외국인 3일 연속 순매수 + 선물 동반	미발생	미충족
추세 복귀 기준	VKOSPI 40 하회 안착	43.6	미충족

자료: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①②가 동시에
충족된 국면은
7월 말과 현재
두 번뿐

참고로 2025년 이후 조건 ①과 ②가 동시에 충족된 시기는 단 두 번뿐이다. 한 번은 작년 7월 말이고, 다른 한 번이 지금이다. 작년 7월 말에는 외국인인 31일 하루에만 7.24 조원을 사들였고, 이후 지수는 17.9% 올랐다. 당시에는 미국 빅테크 실적이라는 확실한 호재가 함께 있었다. 반대로 호재 없이 조건만 맞았던 올해 6월 중순과 7월 중순에는 지수가 잠깐 반등했긴 했으나 이내 다시 밀리며 상승폭을 반납했었다. 결국 이번에도 미중 정상회담, 마이크론 실적, 삼성전자 잠정실적 또는 미국-이란 전쟁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9/24 미중 정상회담
9/30 마이크론
10월 초 삼성 잠정

9월 말부터 주요 외교·실적 이벤트가 이어진다. 먼저 UN총회 고위급 주간에는 중동 정세와 관련한 논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긴장 완화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유가와 금리 불안을 덜어줄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진전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어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무역·AI·반도체 관련 논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관세 협상 기한 연장이나 AI·희토류 관련 원론적 합의 정도를 예상하며, 시장의 기대를 크게 바꿀 결과에 무게를 두지는 않는다.

마이크론 가이던스에서
P와 Q의 동반 성장 및
가이던스 상향 폭 중요

더 중요한 것은 9월 30일 발표될 마이크론 FY26 4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다.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이미 지나간 분기의 성적보다 향후 성장 전망이 시장 눈높이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메모리 가격(P) 상승뿐 아니라 출하량(Q) 확대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다.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실제 수요와 출하도 늘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더해져야 이익 성장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이후 10월 초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에서 국내 반도체의 이익 체력을 확인하고, 10월 말 국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컨퍼런스콜을 통해 2027년 메모리 수급과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판단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0월 초까지 반등
시도 기대는 유요

실적 기대가 반등으로 이어지려면 미-이란 전쟁이 추가로 격화되지 않아야 한다. 전쟁의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유가와 금리 불안이 실적 기대를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이 더 커지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10월 초까지는 반등을 시도할 구간으로 본다. 자사주 매입이 매물을 받아주는 가운데 마이크론의 가이던스와 삼성전자 잠정실적이 이익 눈높이를 높일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지 않고 실적 전망도 개선되는데 지수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높아진 금리 부담이 이익 개선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실적 개선만으로는 증시의 추세를 바꾸기 어렵고 금리 불안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지수 상승폭 제한이 불가피하다.

도표 13. 연내 주요 일정

일자	이벤트	관전 포인트
9/22~9/28	UN총회 고위급 주간	중동 정세, 유가 방향
9/24	미중 정상회담(백악관)	무역·AI·반도체 수출통제
9/30	마이크론 FY26 4Q 실적	2027년 capex·HBM 가이던스
10월 초	삼성전자 3Q 잠정실적	
10월 말	국내 반도체 컨퍼런스콜	메모리 가격 협상, 2027년 수급
11월	엔비디아 FY27 3Q 실적	표본상 21일 창 외국인 평균 -15.1조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변동 가능

자료: Bloomberg, 언론 종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9/18 KOSPI 종가
6,894pt,
주간 수익률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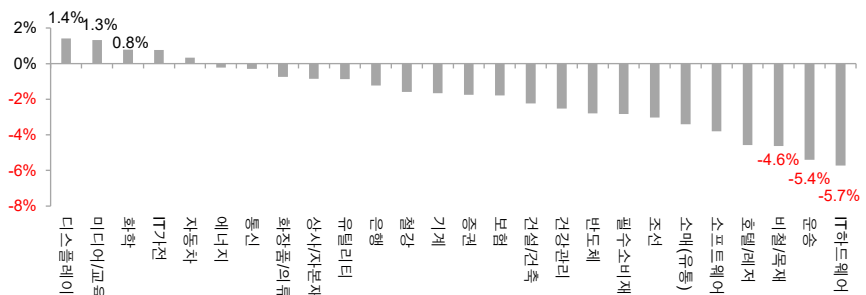
실적 기대감은 다시
기술주로

한국 증시 동향

지난주 KOSPI는 6,894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0.2%를 기록했다. 주 초 금리와 유가 부담이 이어지며 주가 지수가 조정받기도 했으나 이후 연준 및 BOJ의 기준금리 결정과 젠슨 황 CEO의 반도체 낙관론 발언에 주간 낙폭을 대부분 만회했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추가적인 증시 충격이 제한된 가운데, 미 장기금리와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AI 투자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반등했다. 18일에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4%, 6.4% 상승했다

한편 주가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KOSPI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을 앞두고 견조한 이익 모멘텀을 유지했다. 특히 IT가전의 상향 폭이 확대된 가운데 반도체 역시 개선 흐름을 이어갔고, 화학, 운송등 일부 非IT 업종에서도 이익 추정치 상향이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의 이익 모멘텀은 빠르게 둔화됐고 보험 역시 상향 폭이 축소됐다. 최근 주가 반등과 함께 이익 모멘텀 역시 다시 IT 업종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IT를 중심으로 일부 실적 개선 업종이 보완하는 흐름으로 판단된다.

도표 14.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9.18)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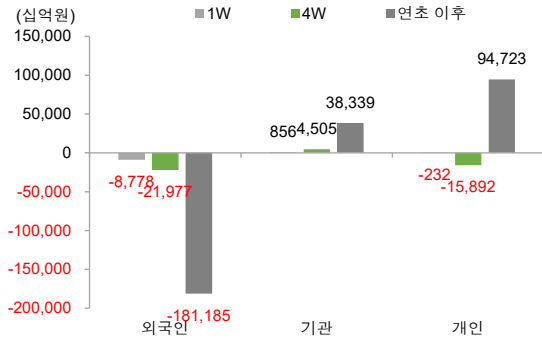
도표 15.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9.18)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8.21	08.28	09.04	09.11	09.18	08.21	08.28	09.04	09.11	09.18
KOSPI	-0.9	-1.8	-1.5	3.3	-0.2	5.1	5.2	3.8	4.0	3.7
KOSDAQ	-7.3	4.5	-3.0	0.9	0.8	2.4	1.6	1.9	1.6	1.6
에너지	-2.9	0.4	3.1	1.8	-4.6	23.4	22.2	15.3	16.4	-0.0
화학	-9.0	9.2	-3.4	0.3	-1.6	2.0	-1.9	3.1	6.6	5.2
비철광재	0.7	10.6	-8.8	-3.1	-2.2	0.2	-0.1	-2.5	0.7	0.6
철강	-7.3	9.1	-0.0	0.1	-1.7	5.0	4.7	4.9	4.1	2.6
건설/건축	-6.9	12.0	-5.6	9.5	-3.0	2.9	0.8	-0.7	-2.5	-3.1
기계	-10.3	13.4	-7.5	6.7	-0.9	6.1	3.7	2.9	2.8	2.7
조선	-10.0	3.7	-0.9	4.3	-5.4	12.9	12.5	4.8	4.5	2.5
상사/자본재	-5.5	4.1	-5.3	2.3	0.3	3.1	8.6	6.6	6.2	1.8
운송	-1.5	4.9	2.0	-1.8	-0.7	5.6	5.5	3.8	3.5	4.2
자동차	-8.6	-3.7	-3.4	-0.4	-4.6	1.3	0.7	0.4	0.3	-0.6
화장품/의류	-2.2	9.4	-7.4	-3.3	1.3	5.5	5.6	4.5	3.2	1.9
호텔/레저	-0.9	3.9	-0.4	-1.2	-3.4	0.4	-0.5	-3.1	-1.1	-2.4
미디어/교육	-4.6	4.1	-0.5	-0.5	-2.8	-1.5	-1.2	-0.8	0.7	1.8
유통	-4.7	4.1	-2.4	-1.2	-2.5	-1.1	-0.7	0.3	0.7	1.7
음식료/담배	-1.5	5.0	-3.3	-2.0	-1.2	2.4	2.5	2.8	1.9	0.6
헬스케어	-5.3	2.0	-4.9	-3.9	-1.7	1.0	0.8	0.8	0.3	2.1
은행	-3.4	5.3	-0.2	2.8	-1.8	1.1	0.4	0.5	0.4	0.5
증권	-5.9	2.9	0.3	-0.9	-3.8	-0.4	-0.6	-1.2	-1.0	-1.6
보험	6.5	0.0	-2.7	2.4	-5.7	12.3	16.0	14.7	15.3	7.3
소프트웨어	-5.5	2.0	-2.3	-3.2	-2.8	-0.1	0.1	1.9	0.4	1.2
IT하드웨어	-14.1	7.6	-2.3	0.6	0.8	11.6	9.5	2.3	1.2	1.0
반도체	3.0	-6.5	-0.4	5.2	1.4	5.2	5.3	3.9	4.3	4.3
IT가전	-8.6	11.6	-3.1	0.2	-0.3	10.2	9.6	11.8	12.8	14.9
디스플레이	-6.6	2.3	-2.6	-1.2	-0.9	-13.6	-0.6	7.0	2.6	-7.3
통신	0.1	-0.6	-3.7	-1.7	-1.7	2.6	2.3	2.3	0.8	1.1
유틸리티	-4.8	6.4	-3.0	8.1	-7.0	-14.0	-14.7	-14.2	-16.8	-2.9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IT하드웨어와 에너지를 선별적으로 순매수했으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상사/자본재, 은행, 조선 등 주요 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가 나타나며 외국인 수급은 보수적인 기조를 이어나갔다. 기관은 반대로 KOSPI와 KOSDAQ을 모두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상사/자본재, 은행, 화장품/의류, 화학, IT하드웨어를 순매수한 반면 소프트웨어, 반도체, 자동차, 유틸리티, 에너지에 대해서는 순매도를 하며 업종별 차별화 흐름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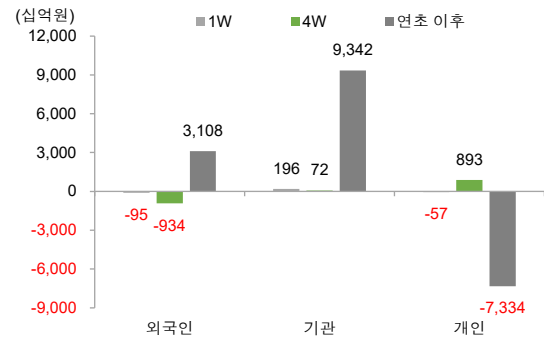
도표 16.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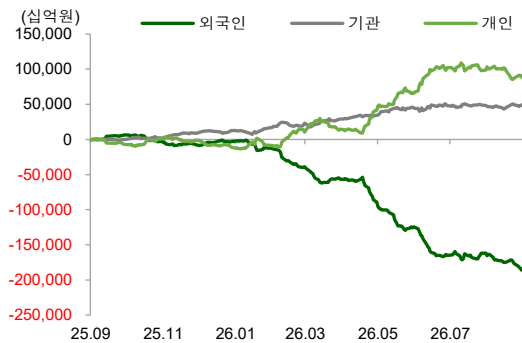
도표 17.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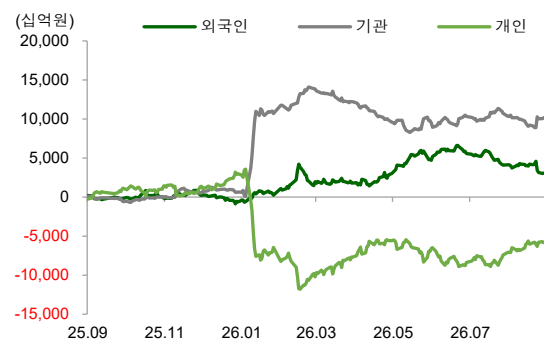
도표 18.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IT하드웨어	154.7
	에너지	53.2
순매도 TOP5	반도체	-6,035.3
	소프트웨어	-463.4
	상사/자본재	-339.8
	은행	-274.0
	조선	-174.0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상사/자본재	269.4
	은행	263.8
	화장품/의류	162.1
	화학	130.2
	IT하드웨어	105.8
순매도 TOP5	소프트웨어	-147.0
	반도체	-96.1
	자동차	-96.0
	유틸리티	-57.3
	에너지	-51.8

주) 2026.09.1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8/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 7월 산업생산 한 7월 소매판매	9/1 한 8월 수출입동향 미 7월 JOLTS 보고서 미 8월 ISM 제조업 지수 PANW	9/2 미 8월 ADP 민간 고용 AVGO, HPE	9/3 미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DELL, LULU	9/4 미 8월 고용보고서 미 8월 실업률
9/7	9/8	9/9	9/10 ECB 통화정책회의 미 8월 PPI ADBE, ORCL	9/11 BRICS 정상회의(12~13일) 미 8월 CPI
9/14	9/15 연준 FOMC(~16일)	9/16 미8월 소매판매 LEN	9/17 BOJ 금융정책위원회 BOE 통화정책위원회 CCL	9/18
9/21	9/22 UN총회(~9/28)	9/23	9/24 미·중 정상회담(예정) COST, NKE	9/25
9/28	9/29 미 8월 JOLTS 보고서 KMX	9/30 미 예산안 합의 시한 미 8월 PCE 미 9월 ADP 민간 고용 MU	10/1	10/2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